

당신에게 띄우는 에메랄드빛 편지 크로아티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다섯 사람이 만나 일주일 동안 렌터카를 타고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다.

낮선 여행길 위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 서로 몰랐지만, 그동안 같은 꿈을 꾸어 왔단 걸.

이렇게나 반짝이는 크로아티아를 만나는 꿈.

에디터 고서령 기자 취재 트레비 크로아티아 원정대(글 정지은, 사진 박근우, 영상 김민수)
취재협조 크로아티아관광청 www.croatia.hr 터키항공 www.turkishairlines.com/en-kr



C R O A T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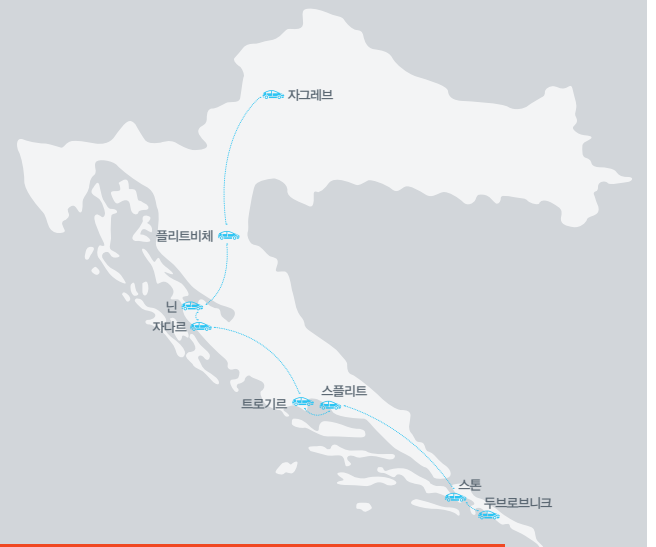


고백 to 크로아티아

이제야 고백합니다만, 크로아티아는 오랜 시간 동안 제게 어떤 이상향 같은 곳이었습니
다. <꽃보다 누나>에 나와서 말 그대로 ‘뽕’ 떠 버리기 훨씬 전, 단체 패키지 상품이 쏟아지
고 홈쇼핑 채널을 돌릴 때마다 ‘크로아티아’가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었
던 때부터요.

크로아티아라기보다 두브로브니크라고 해야 맞겠죠.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 그 책에서
두브로브니크의 풍경을 보았거든요. 그날부터 제게 크로아티아는 언젠가 꼭 가야만 하는
곳, 퐁퐁 숨겨 놓은 비밀 여행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세계 시간에 ‘자그레브’를
추가해 놓고, 가끔 그 시간을 들여다보곤 했죠. 아, 저는 가고 싶은 도시들이 생길 때마다
핸드폰에 그 도시의 현재 시간을 추가해 두곤 한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섬이나 마찬가
지인 이 작은 나라가 너무 좁게 느껴질 때, 그 비현실적이고 낮은 지명들과 먼 거리를 느낄
만한 시간 차이를 보고 싶노라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도 자그레브부터 두브로브니크까지 나라
전체를 횡단하는 코스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껏 환
호성을 질렀습니다. 게다가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신규 취항 노선의 첫 비행
기를 타 볼 수 있는 기회까지! 햇살 좋은 5월에 만난 크로아티아에서의 일주일, 그 반짝이
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띄웁니다.



여행기간 2016년 5월3~11일(6박 9일)

원정대원 3명(정지은, 박근우, 김민수)

이번 여행에서 원정대원들은 <트레비> 고서령 기자, 크로아티아인 가이드 다미안(Damjan Beusan)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크로아티아를 종단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출발해 플리트비체, 닌, 자다르, 트로기르, 스플리트, 스톤, 두브로브니크까지. 로컬 가이드의 해박한 지식을 양분 삼아 살살이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Croatia Expedition

크로아티아 원정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준 여행 정지은

어쩌다 올려다본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이 마치 새로운 길처럼 하얗게 남아 있을 때가 있다. 그 하늘이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을수록 그 길의 흔적은 선명해서 오래도록 그 풍경에 취해 있곤 했다. 트래비아카데미 크로아티아 원정대로 함께한 일주일은 하늘에 난 선명한 구름길처럼 내게 몇 개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줬다. <트래비>라는 잡지와와의 인연, 쿨가이 다미안과 원정대원들과의 만남, 크로아티아라는 멋진 나라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여행잡지에 직접 내 기사를 실는 짜릿한 기회까지. 무엇보다 '다시 길 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찾을 수 있어 기뻐던 여정이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크로아티아 박근우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나로서 3년 전 신혼여행으로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이 멋진 나라를 언제 다시 한번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빨리 찾아왔다. 지난 번 여행 때 찾았던 도시는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지난 여행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고, 처음 방문하는 도시는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하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생겼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취재 여행'이었던 점에서 그동안의 여행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유명한 곳을 찾아가고 눈으로 보고 빠르게 지나치는 여행이 아닌 아직 소개되지 않은 곳들을 찾아가고 그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너무도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7일 김민수

어릴 적 가끔씩 집에 선물로 들어오던 과자 종합선물세트가 떠오른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만양 들떠서 아금아금 아껴 먹었던 기억. 7일간의 크로아티아 여행은 마치 그런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일정 동안 내내 동고동락했던 가이드 다미안은 만약 혼자 왔다면, 아니 현지인이 아니었다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크로아티아의 매력들을 유쾌하게 소개해 주었다. 게다가 혼자였다면 외로웠겠지만 함께여서 더 신나고 재미있었던 원정대원들과의 '케미'도 좋았다. 매일매일이 그 전날보다 좋았고 새로웠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기 싫을 정도로 산맥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풍경과 어딜 가도 이어지는 주황색 지붕의 물결, 골목 사이에서 마주친 장난기 가득하고 친절함 크로아티아 사람들까지. 이번 여행의 후유증은 꽤나 오래갈 것 같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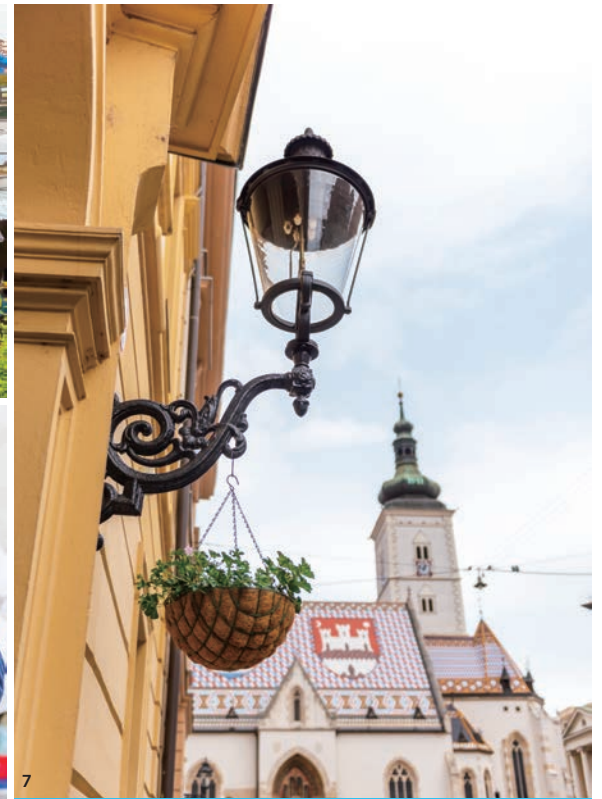
Zagreb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붉은 심장



3



인심 듬뿍 넣어 만든 옥수수빵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11시간, 이스탄불 공항에서 대기 3시간 반, 이스탄불에서 또 2시간 반, 장장 17시간을 날아와 처음 마주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하늘에서 만난 자그레브의 첫인상은 초록이었다. 뾰뾰하게 울창한 숲의 초록이 아니라 순하다 순한 초록색.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흩뿌렸고, 옷을 하나 더 꺼내 입어야 했을 정도로 촉기까지 했는데 이 도시의 인상이 '회색'이 아니라 '초록'인 건 왜일까?

반 엘라치치 광장(Ban Jelačić Square)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향한 곳은 자그레브의 명물, 돌라치(Dolac) 마켓이다. 전통 의상을 입고 바구니를 머리에 인 아주머니 모습의 쿠미차(Kumica)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마치 제주도의 해녀상처럼 친근하다. 자그레브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통일된 천막 아래, 제철을 맞은 싱싱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올리브 오일 등 각종 소스, 향긋한 라벤더 포푸리까지 다양한 물건이 가득하다.

보통 관광객들은 지상에 있는 마켓만 보고 발길을 돌린다. 지상만큼 넓은 지하 마켓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하사가처럼 생긴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내려가면 각종 빵, 고기류, 치즈 등 로컬들의 입맛을 날것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활기찬 시장이 펼쳐져 있다. 이게 뭐가 궁금해 쳐다보기만 해도 크로아티아어로 "한번 먹어 볼래?(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입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며 치즈며 빵을 뚱뚱뚱 떨어 건네는, 인심 좋은 상인들로 가득한 공간이다.

이날 지하의 한 가게에서 시식한 홈메이드 콘브레드(Corn Bread) 옥수수빵의 맛이 지금도 생각난다. 사람 좋은 아주머니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며, 큼직하게 자른 빵을 내밀었고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소한 맛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배부르니까 다음에 사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장에 찾아가봤을 땐 아무리 돌아다녀도 같은 빵을 찾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가 아직 출근을 안 하셨나? 혹시 지금 빵을 만들고 계신 걸까? 별별 추측과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역시, 좋은 건 눈앞에 있을 때 챙겨야 한다.

가로등을 켜고 끄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 있다?

자그레브의 가로등은 특이하다. 한국처럼 별도로 세워진 가로등에 전기로 불을 켜는 방식이 아니라, 길가 건물에 각각 가스등이 붙어 있는 식이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가스 밸브를 커서 불을 붙여야 작동한다. 전통을 중시하는 자그레브의 면면은 이런 데에서도 빛을 발한다. 크로아티아 태생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전기등'을 제안했을 때도 자그레브 시청은 거절했다. 그 결과 지금도 여전히 긴 막대를 이용해 일일이 불을 밝히는 가스등을 사용하고 있다. 자그레브 시내 곳곳의 가스등에는 번호가 붙어 있는데, 매일 200여 개에 달하는 자그레브 구시가지(Upper Town) 내에 설치된 가스등의 불을 밝히고 끄러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오래된 도시의 구석구석을 손수 밝히고 다니는 직업이라니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다. 불을 켜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불꽃이 춤추는 가로등의 불빛은 따뜻하고 은은했다. 혹시나 자그레브의 가로등이 최신식으로 싹 바뀌었다면, 이 도시는 매력 포인트를 10점쯤 깎아 먹었을 것 같다.



1 자그레브 성모승천 대성당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소녀들 2 성마리코 성당 지붕의 유명한 타일 장식. 왼쪽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문장.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하는 문장이 그려져 있다 3 자그레브 360°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 4 자그레브 시민들은 지금도 대형마트 대신 돌라치 시장에서 장을 본다 5 홈메이드 옥수수빵을 먹어 보라며 잘라 건네는 시장 아주머니 6 자그레브 구시가지의 가스 가로등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7 돌라치 시장에서 맛본 크로아티아 소스. 한국의 쌈장처럼 양상추에 찍어 먹으면 좋다



QR코드를 인식해
크로아티아 원정
대의 여행 동영상
을 감상해 보세요

자그레브에서 만난
거리의 역사



자그레브에서 커피를 생각하는 법

커피를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나 눈을 찢고 찾아도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곳,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국적 커피 체인점이 전무한 곳. 크로아티아는 그런 나라다. 점심시간마다 커피 체인점의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든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차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아무래도 좀 낯선 풍경이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다. 느긋한 시간을 즐기 위한 문화에 가깝다. 여럿이 함께 또는 혼자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적어도 1~2시간 동안 천천히 커피를 음미한다. 자그레브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는 곳 중 하나라는 카페를 찾았다. '코기토 커피 Cogito Coffee', 크로아티아어로 '커피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요란한 간판 없이 골목 안쪽에 조용히 자리한 이 카페는 작지만 비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크로아티아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꼭 닮았다는 의자들이 웅기종기 놓인 긴 테이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어릴 적 향수를 떠올린다는 그 인테리어가 카페의 민트색 벽면과 아주 잘 어울린다. 잔잔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즐기는 여자들, 홀로 잡지를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남자, 그리고 문밖에 놓인 작고 동그란 테이블에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앞에 놓고 은발 신사가 천천히 신문을 읽으며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이것이 자그레브 사람들이 커피를 생각하는 방법이다.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줄지어 종이컵을 들고 서성이는 서울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조금 씩씩해졌다.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3위를 수상했다는 이 카페의 훈남 바리스타 마티야 Matija가 직접 내려 주는 핸드드립 커피의 맛은 지쳐 있던 여행자를 치유하기에 충분했다. 가격도 황송할 정도로 저렴하다. 10~12KN루나. 크로아티아 화폐 단위. 10KN는 약 1,800원 정도면 훌륭한 맛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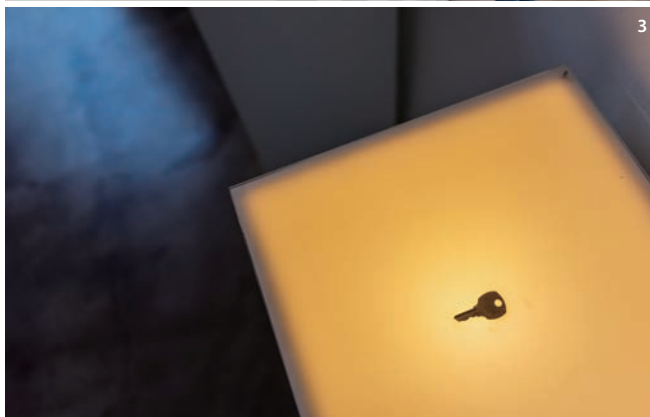
1 비 내린 다음날 아침 자그레브의 거리
2/3 실연박물관에서는 개인의 이야기가
깃든 아주 소중한 물건들이 소중한 전시
품이 된다

1



● ● ●
실연박물관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
 ● Čirilometodska 2, 10 000 Zagreb
 ● www.brokenships.com
 ● 6-9월 09:00-22:30, 10-5월 09:00-21:00
 ● 성인 기준 30KN

2



3

깨진 관계를 슬퍼하는 당신에게

지난 6월, 미국 LA에 오픈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실연박물관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의 원조를 바로 이곳, 자그레브에서 만날 수 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하나의 콘텐츠로 주목한 예술가들의 시도로 탄생한 이 박물관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크로아티아의 실연박물관은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타이완 타이베이 등 35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곳엔 '실연'이란 한 단어에 다 담을 수 없는 모든 갈래의 관계들이 담겨 있다. 남녀 관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소중한 물건과의 관계 등 세상 모든 관계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남자친구와 갔던 플로리다 호수의 풍경 사진, 1992년 사라예보에서 전쟁을 겪은 아이의 편지, 하도 갖고 다녀서 속에 들어 있는 솜털이 다 드러나 보이는 인형,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신고 있던 빨간 구두, 비즈니스 동업자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광고판, 살이 쪼을 때 입었던 과거의 청바지, 부부의 서명이 되어 있는 수표책,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자살노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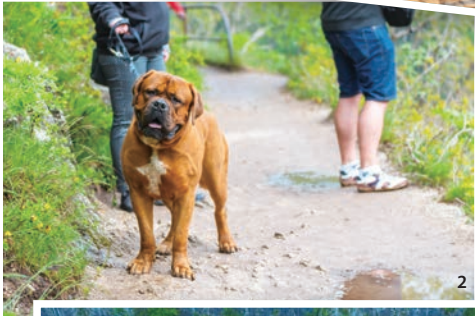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실연박물관과 협력하는 전시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명의 책 <실연의 박물관(실연에 관한 82개의 이야기, 헤어짐을 기증하다)>도 출간됐고, 오는 9월까지 전시가 진행된다니 조만간 제주를 찾아 자그레브와 뭐가 다른지 살펴보고 싶다.



신이 만든 거대한
정원, 플리트비체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
: 플리트비체에서는
침묵을 권합니다



소중한 순간에는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시나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을 위한 곳이었어요. 감탄사를 내뱉는 것이 지칠 만큼 호수와 숲과 폭포가 번갈아가면서 저를 감동시켰어요. 압도적이었다가, 앙증맞았다가, 잔잔한가 싶으면 계단으로 흘러넘칠 만큼 물살이 세지기도 하고, 이제 좀 이곳을 알겠다 싶으면 또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나곤 했죠. 총 16개 층의 크고 작은 호수와 그 호수들 사이를 잇는 90여 개의 폭포로 구성된 장소이니,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한국의 명이나물처럼 생긴 '곰의 마늘Bear's garlic'이란 풀을 알게 된 것도 재미있었어요.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들이 가장 먼저 이걸 찾아 먹고 기운을 차린대지요. 킁킁 맡아 보니 정말 마늘 냄새가 났어요. 저 역시 지천으로 돌아 있는 이 생명력 넘치는 풀을 쓱쓱 문질러 냄새를 맡으며 기운을 냈습니다. 사실 만성 운동 부족인 제가 가장 긴장했던 일정이 이곳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플리트비체는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4시간 가까이 드넓은 공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산불 조심', '흡연 금지' 같은 제도성 현수막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점이에요.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마다 매달은 색색의 산악회 리본 같은 것도 물론 없었지요. 쓰러져 물속에 잠긴 나무들마저 자연 그대로 놓아 두는 이곳에서 저는 영국의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 John Everett Millais의 그림 <오펠리아Ophelia>를 떠올렸습니다. 청초하고 아름답고 관능적인 오펠리아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밀레이의 붓끝을 통해 무엇보다 생생하고 아름답게 남았지요. 깊은 속까지 투명하게 비치는 물에 잠겨 이리저리 물살에 흔들리던 나무들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오펠리아가 잠든 안식처가 아닐까' 생각했다면 제 감상이 너무 앞서나간 걸까요.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 그곳은 한 해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크로아티아 최대의 관광지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트레킹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탄 보트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보존을 위해 전기로 움직인다는 보트는 단순함 그 자체였고, 안내판에 적힌 시간에 맞춰 사람들을 태웠고, 시간이 되자 출발했습니다. 그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의 고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햇살은 따뜻했고, 호수는 적막할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 새의 지저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호수 가득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이 담겨 있었고, 조용히 그 호수의 풍경 속을 지나간 순간이었죠.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깨끗했어요. 어떤 안내 멘트도 필요 없을 만큼, 고요만으로도 자연이 주는 충만함에 흠뻑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말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평화로웠던 그때, 당신과 함께 다시 가보고 싶어요.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플리트비체는, 그런 곳이에요.

1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폭포를 감상하는 사람들. 'Large Waterfall'이라는 이름의 이 폭포의 높이는 78m다 2 공원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친다 3, 4, 5 '요정의 숲'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플리트비체. 한가롭게 걷고 싶다면 오후 3시 이후를 추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는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는 시간이다

Plitvice Lakes National Park



On the Road to
Dalmacija
달마치아

크로아티아 속 남국으로 가는 길

크로아티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다. 이 나라의 허리를 크로아티아에서 가로로 가장 긴 산맥, 벨레비트Velebit산이 가로지른다. 크로아티아에서 '북부'라 함은 벨레비트산의 북쪽, '남부'라 함은 벨레비트산의 남쪽을 뜻한다. 남쪽과 북쪽은 기후, 문화, 건축, 사람들의 성격, 자주 쓰는 인사말과 부르는 노래까지, 같은 나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지런하고 담백한 북쪽 사람들, 이탈리아인들의 화끈한 기질을 닮은 남쪽 사람들이 한나라에 섞여 살고 있는 셈이다. 둘의 격차가 상당하다 보니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 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디즈니 만화영화를 기억하는지? 그 만화를 보지 못했어도 하얀 몸에 까만 반점이 콧코 박힌 달마티안Dalmatian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 달마티안 강아지의 고향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달마치아Dalmacija(영어로는 달마티아Dalmatia) 지방이다. 지도상에서 보면 벨레비트 산맥의 남쪽, 자다르·시베니크·스플리트·두브로브니크와 그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까지 모두 달마치아 지방에 속한다.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비싸고 긴 길이라는, 벨레비트를 관통하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정말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다.

터널에 들어서기 전 섭씨 14도였던 온도계가 터널을 빠져 나오자 2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터널 하나 지났을 뿐인데 10도 넘게 기온 차이가 나다니! 꽤 쌀쌀했던 북부 날씨 탓에 저마다 스카프와 도톰한 가디건을 걸치고 있던 우리는 이내 모두 '덥다, 더워'를 내뱉으며 겉옷을 벗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북부의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도 남부는 영상 10도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인란다.

풍경도 확연히 다르다. 북부엔 초록 숲이 울창하고 나무로 만든 집이 빼곡했는데, 남부엔 키 작은 올리브나무와 와인을 빚기 위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들이 군데군데 순하게 엮드려 있다. 이렇게 다른 식생 때문에 크로아티아 북부에선 화이트와인, 남부에선 레드와인이 더 맛있단다. 남쪽은 너무 더워서 '식물처럼 살아 있는' 척만 하고 있기도 힘들 정도라는 가이드(그는 자그레브에 살고 있다)의 표현에 웃음이 절로 터졌다. 하지만 한나라에 이토록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을,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장난스런 불평을 하면서도 실로 이 산이 만들어 준 선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Zadar

자다르

자연이야말로
천재 예술가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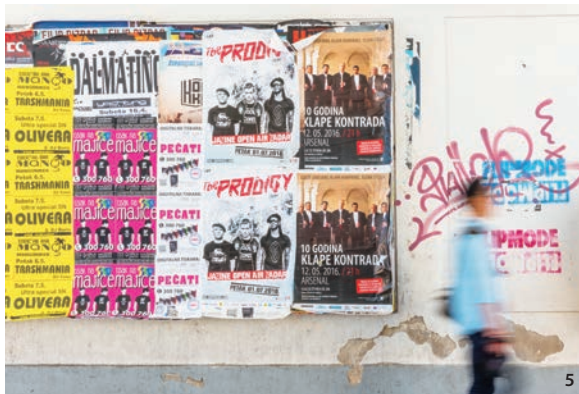
처음 자다르의 바다 오르간The Sea Organ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벽 위에 세워진 오르간을 떠올렸다. 그래서 처음 바다 오르간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약간 감이 섰다. '겨우 이거 갖고 호들갑을 떨었던 말인가? 노래하는 도로도 아니고, 이 시멘트 계단에서 무슨 음악이 들린다는 거지?'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의 오만함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라고 극찬한 자다르의 석양을 감상하면서 바다 오르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다. 관과 공명통을 웅벽 아래쪽에 설치해 놓은 덕에 '부웅~' 소라껍질을 부는 듯한 소리가 길게, 또 짧게 들려왔다. 투명한 바닷물이 철썩일 때마다, 그 움직임과 강약에 따라 소리가 이어졌다. 단 한 번도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 '천의 음색'을 가진 오르간이다. 지휘자도 필요 없다. 오직 바람과 바다만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화음이고 음색이다. 사람들은 오르간 구멍이 뚫린 벽에 걸터앉기도 하고, 피아노 건반처럼 꾸며놓은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한다. 피아노 건반을 본떠 만든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바다를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이렇게 지척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살 수 있구나! 횃집과 상점들에 점령당한 내가 사는 도시의 해변과는 너무 달랐다.

바다 오르간을 보러 갔다면 태양의 인사The Greeting to the Sun도 놓쳐서는 안 된다. 태양부터 명왕성까지의 태양계를 크기와 거리의 비례에 맞춰 배열해 놓은 이 거대한 설치예술작품은 낮에 모아둔 태양열을 이용해 매일 밤 시시각각 다른 빛의 공연을 선보인다. 그날 저녁, 어디선가 가방을 둘러맨 꼬마 아이들이 잔뜩 나타나 이 원형의 작품 안에 들어서서 손을 잡고 까르륵대며 뛰어다녔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까르륵 웃으며 좋아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일상이 거기 있었다. 셀카봉으로 무장한 관광객들만 잔뜩 돌아다니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곳의 시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장소라는 것이 단박에 느껴졌다. 자다르 사람이면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을 하나씩은 갖고 있겠지?

한 도시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서 비롯되는 추억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서울 종로의 피아노 거리가 떠올랐다. 30대 초반의 젊은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Nikola Bašić에게 이런 대공사를 맡기고, 처음에는 낯설었을 결과물을 오롯이 받아들여 지금의 명소로 만든 자다르의 모든 사람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바다 오르간과 태양의 인사, 단 2개의 건축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건축가 뒤에는 이처럼 좋은 작품을 사랑할 줄 아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다.

1,2 석양이 내려앉은 바다 오르간, 태양의 인사 3 바다 오르간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는 사람들 4,5,6 자다르 올드시티의 풍경



Nin_닌

시간을 품은 작은 보석



1년의 올드타운에는 작은 교회가 많다. 성십자가 교회(Church of Holy Cross)에서는 매년 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는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린다. 2,3 EU로부터 에코 프렌들리 인증을 받은 닌의 소금



솔라나 닌(Solana Nin) 소금박물관
 Ilirska cesta 7, 23232 Nin
www.solananin.hr



드넓은 평야에 자리한 작은 해안 마을, 닌_{Nin}은 3,000년 전부터 왕국이 세워졌던 아주 오래된 역사 도시다. 비옥한 토양과 함께 과거 금과 같이 여겨졌던 소금을 거두는 염전까지 갖췄으니 수많은 왕족이 탐을 낼 수밖에. 이곳저곳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성벽과 로마제국의 유적들이 이 마을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 준다.

닌은 그 오랜 역사와 함께 천연 소금으로 유명한 도시다. 지금도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닷물을 가두고 건조시켜 소금을 만들고 있다. 일체의 인공적인 도구 없이 사람의 손으로 정직하게 수확한다는 게 이곳의 자랑이다. 깨끗한 환경, 풍부한 일조량, 벨레비트산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바람,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질 좋은 소금 생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오직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씨가 지속될 때만 소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허락해야 만들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다.

아드리아해의 염전 중 유일하게 EU로부터 에코 프렌들리(Eco Friendly) 인증을 받았다는 이곳의 소금 중에서 '플라워 소금(Flower of Salt)'은 더 특별하다. 바닷물이 다 건조되면 가장 위쪽 표면에 얇은 층으로 형성되는 소금으로, 일반 바다소금의 6배에 달하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음식을 완성한 후 마지막에 살짝 뿌려 내면 풍미를 기가 막히게 살려 준다.

염전 옆에 자리한 소금박물관으로 들어가 봤다. 모습은 박물관이라기보다 작은 기프트숍에 가깝다. 그래도 친절한 직원들이 염전을 둘러보게 해주는 것은 물론 염전의 역사부터 소금의 특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니, 제대로 된 박물관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플라워 소금부터 라벤더·세이지·로즈마리·바질 등 허브를 넣은 소금, 소금으로 만든 각종 비누·샴푸·치약, 소금 입욕제, 소금 초콜릿과 크래커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Trogir 트로기르

중세문명이 꽃핀 섬

1,4구시가 중탑에서 내려다본 풍경 2 바람이 많이 부는 트로기르의 골목길은 구불구불하다 3 올드타운이 있는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작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

트로기르Trogir 올드타운은 유네스코가 '중부유럽에서 로마네스크Romanesque—고딕Gothic 양식 건축물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고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처음 도시를 세운 뒤로 로마, 비잔틴, 헝가리안, 베네치안, 나폴리안 등이 차례로 이 땅을 탐내 점령하고 도시를 세웠다. 땅을 파 보면 층층이 다른 문명의 건축 유적이 나올 정도로, 풍부한 건축 유적과 역사를 품고 있다.

크로아티아 대륙과 치오보Čiovo 섬 사이에 꼭 끼어 있는 작은 섬. 두 다리로 작은 다리를 건너 그 섬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시간을 되돌린 듯한 중세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베네치안 상인들의 영향과 편리한 배길 덕에 상업이 꽃을 피웠던 이곳에는 '니 도어Knee Door'를 가진 건축물이 유난히 많다. 출입문 바로 옆에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이 달린 커다란 유리창문이 있는 형태로, 사람의 무릎을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중세시대 상인들이 향신료와 식재료, 옷가지를 팔던 그 상점에서 지금은 라벤더 포푸리와 말린 무화과, 자석 따위 기념품들을 팔고 있다.

구불구불 미로 같은 올드타운의 거리는 해변 산책로로 이어진다. 산책로의 한쪽엔 한가롭게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제법 큰 요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이런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달마치안 지방의 해안도시와 섬을 일주하는 작은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이 많다고. 아드리아해를 향해하면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매일 다른 해안도시를 만나는 여행. 이야기만으로도 매력적이다.





Split

스플리트

시간을 간직한
유쾌한 도시



1
2



옛 문명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스플리트



1,2 스플리트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로운 매력적인 도시다 3 디오클레티안 궁전 광장 옆, 천장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 곳에서 크로아티아 전통 합창단이 공연을 연다 4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구시가의 풍경 5 디오클레티안 궁전 안에는 작은 골목길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다 6 스플리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마르얀 언덕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달마치아 지방의 최대 도시 스플리트. 전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했던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안(Diocletian)이 말년을 보낸 궁전이 있는 곳이다. 고대 로마의 흔적과 크로아티아 시민들의 손때가 고스란히, 현재의 숨결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기원후 305년에 지어진 디오클레티안 궁전(Diocletian's Palace)은 궁전이란 이름보다는 작은 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을 정도로 넓고 크다. 그 안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메인 거리인 '카르도(Cardo)', 동서를 연결하는 거리인 '포럼(Forum)'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광장 '페리스틸(Peristyle)'을 중심으로 골목길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다.

황제가 신하들을 접견하는 장소였다는 메인 광장에는 작은 계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나 신하들이 황제보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상징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계단에 지금은 여행자들이 작은 방석을 깔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간여행을 한다. 광장 옆에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 입은 합창단이 크로아티아 전통 합창 공연을 선보인다.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 선물한 서늘한 그늘에서 원형으로 뚫린 천장을 통해 파란 하늘과 쏟아지는 햇빛을 보며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카네기홀 공연이 부럽지 않다.

궁전의 수많은 골목길 가운데엔 '렛미패스(Let Me Pass)'라는 이름의 길이 있다.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길인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여기를 '세상에서 제일 좁은 골목길'이라 여긴다 한다. 알고 보니 이 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19~20세기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를 유혹할 때 애용하던 길이었다고. 길옆에서 기다리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오는 것이 보이면 그때 이 길에 같이 들어서서 괜히 몸을 밀착하며 슬쩍 스킨십을 유도했었다 한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면 같이 떠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렸는데, 당시 크로아티아 여성들이 연애에 꽤나 적극적이었나 보다.

궁전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천천히 남쪽 문으로 빠져 나가면 그 유명한 해변의 거리 '리바(Riva)'에 닿는다.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이국적인 정취를 선사하는 거리를 따라 즐비한 노천카페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크로아티아 남녀들이 여유를 즐기는 풍경이 있다. 우리가 스플리트에 도착한 날은 마침 축제가 겹친 주말이라 놀랄 만큼 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크로아티아의 젊은 남녀들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셨고, 주먹가 골목에서 만난 꼬맹이들은 동양의 여행자들이 신기하진 먼저 인사를 건네며 까르르 웃었다. 길가의 꽃 사진을 찍고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가와 꽃 이름을 알려 주는가 하면, 자기 집 고양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는 아주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거닐다가 스플리트의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다는 마르얀(Marjan) 언덕을 물어 물어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뜻밖의 선물. 언덕 위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관광객들과 하객들이 뒤섞인 와중에 텍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이날의 주인공과 한껏 섹시하게 꾸민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들었다. 기타를 잡고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을 중심으로 둘러러 친구부터 아빠의 목마를 탄 꼬마까지. 다들 한 잔 걸쳤는지,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목소리 톤도 높다. 최신형 드론은 왕영 날아다니며 이 즐거운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부러 웃으라고 사진사가 유도하지 않아도 음악과 분위기기에 취한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리듬을 타고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촬영을 마쳤다. 스플리트의 기억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준 부부의 행복을 빌면서, 나도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한 장 남겼다.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Dubrovnik

두브로브니크

진주를 감상하는 방법



1

1,2,3 1시간 30분 남짓 걸리는 두브로브니크 성벽 투어를 하는 동안 여행자들은 쉼 없이 사진을 찍는다 4 두브로브니크 올드시티의 메인광장. 매시간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 주는 시계탑에는 그날의 달 모양을 정확히 보여주는 달 시계도 있다 5 아드리아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부자 카페Cafe Buza



2



3

먼저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그랬다. 두브로브니크를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한다고. 이곳이 너무 강렬해서, 제일 먼저 보고 나면 다른 지역이 시시하게 느껴질 거라고. 실제로 두브로브니크에 와 보니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았다.

13세기부터 만들어져 지금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두브로브니크 성벽. 그 성벽 위를 걸어 보는 투어는 이곳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1시간 30분 정도면 2.2km에 달하는 성벽을 찬찬히 걸어 볼 수 있는데 성벽으로 일단 들어가면 그늘이 전혀 없으니 아침 일찍 가거나 아예 늦게 출발하는 것이 낫다.

오후 4시 이후 선선해질 무렵에 성곽을 한 바퀴 걷고, 케이블카를 타고 스프리츠 산에 오르는 코스를 추천한다. 산 정상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과 방금 걸었던 성곽 안쪽의 아름다운 도시를 내려다보는 짜릿함! 세상을 만든 신도 그렇게 흐뭇하게 자신이 만든 세상을 내려다봤을까? 아드리아해의 쪽빛 바다의 탁 트인 전망과 주황색 지붕으로 가득한 오래된 도시의 성벽, 그리고 유유자적 떠다니는 보트와 시원한 바람, 지평선을 넘어가는 해가 물들이는 해안선과 하늘빛까지 합치면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어진다. 성벽과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는 것도 놓치지 말자. 나름 경쟁이 치열해서, 꾸물거리다가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뺏기기 일쑤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위험해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자신만의 포즈를 잡아가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또 하나의 볼거리다.



붉은 지붕의
물결이 넘실대는
두브로브니크

성곽을 걸으며 이 관광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많은 시민들이 성곽 안의 주거지를 여행자들에게 내주고 부수입을 챙기면서, 성곽 밖에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안에서 사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널려 있는 빨래 사진 찍기에 쫓긴 나는 빨래를 찍고, 찍고, 또 찍다가 결국 포기했다. 그냥 보이는 모든 집을 찍는 게 빠르겠다 싶어졌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햇빛과 바람이면 일부러 빨랫감을 만들어서라도 빨래를 널고 싶어질 것 같긴 하다. 이월부터 잠옷까지 종류도 다양한 남의 집 빨래 구경은, 바다와 주황빛 기와지붕에 지친(?) 호사로운 눈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사실 매일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들여다보든 말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맥주 마시며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집 안방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호사를 누리는 그들의 여유로움이 새삼 부러웠다. ⑦



호젓함을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두브로브니크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관광지인지라, 어딜 가든 북적이는 인파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두브로브니크를 여행하면서도 복잡한 인파 속에 하루 종일 머무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두브로브니크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 머무는 것이다.



휴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들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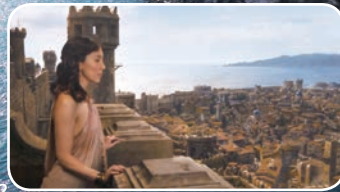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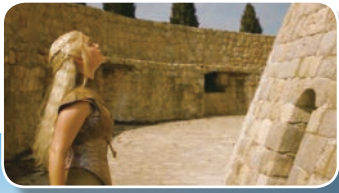
총 22km 길이의 퍼블릭 해변에서 호젓하게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버스나 보트를 타고 20~30분이면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까지 갈 수 있다. 호텔 숙박요금도 올드타운 대비 15%가량 저렴하고, 가족 여행객을 위한 빌라 형태의 객실도 있어 선택지가 다양하다. 셰라톤 두브로브니크 리비에라 호텔 Sheraton Dubrovnik Riviera Hotel, 호텔 아스타리아 Hotel Astrea, 호텔 들리니 Hotel Mlini 등이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곳간 스톤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길에 만나질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들러 보면 좋은 마을. 전통 방식으로 천연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 옛 두브로브니크 리퍼블릭에 속했던 지역으로, 당시 귀한 소금을 지키기 위해 쌓았다는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성벽에서 매년 9월 국제 성벽 마라톤이 열린다.

천재 화가가 태어난 평화로운 동네 차브타트

호젓함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림 같은 골목길 사이사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먹어 살리는 행복한 길고 양이들이 살고 있다. 화가 블라호 부코바초 Vlaho Bukovac의 생가가 있다. 그가 어린 시절 채색했다는 집안 내부와 그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Game Of Thrones> in Croatia

세븐 킹덤의 왕좌가 있는 곳, 크로아티아

이번 크로아티아 여행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여기가 바로 <왕좌의 게임> 촬영지예요!”였다. <왕좌의 게임>은 요즘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다. 원작 소설까지 찾아볼 정도로 이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나로선 ‘덕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이번 여행에서 직접 만난 드라마 속 배경을 소개한다.

글 김민수 사진 김민수, <왕좌의 게임> 스크린샷



7왕국의 수도 킹스랜딩의 촬영지

<왕좌의 게임>은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7개의 왕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판타지 드라마다. 그중 7왕국의 수도인 킹스랜딩은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 그곳의 실제 촬영지가 두브로브니크다. 대표적인 촬영 장소로는 두브로브니크 성벽 밖에 있는 로브리예나츠 요새(Lovrijenac Fort)가 있다. 드라마에서는 CG를 입혀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면 드라마 속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요새 아래의 바닷가는 극중에서 블랙위더 전투가 벌어졌던 곳. 실제로는 카약을 타고 아드리아해를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장소다.

죽지 않는 자들의 집 민체타 성루

두브로브니크는 킹스랜딩 외에 상업도시 ‘과스’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극중에서 나오는 ‘죽지 않는 자들의 집’은 성벽투어 중 만날 수 있는 민체타 성루(Minčeta Tower)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지만 두브로브니크 구시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과스의 다른 촬영지들은 로크룸섬(Lokrum Isla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섬은 두브로브니크에서 보트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한다.

1 성벽 투어 중 만날 수 있는 민체타 성루
2 성벽 위에서는 킹스랜딩의 촬영지.
로브리예나츠 요새를 가장 잘 볼 수 있다
3 요새 아래쪽에서는 드라마 속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디오클레티안 궁전 지하 용들의 감옥

〈왕좌의 게임〉 주인공 중 한 명인 대너리스 세 마리의 용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룡이 엄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 '미란'의 배경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다.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안 궁전(Diocletian's Palace) 지하는 극중에서 대너리스가 키우는 용들을 가둬 놓은 곳으로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감옥으로 나오지만 실제 궁전 지하는 기념품점과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 유적지로 나뉘어 있다.

1 대너리스의 용들이 불을 뿜던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지하 2 가장 인기 있는 등장인물인 티리온 라니스터의 모형과 함께 촬영 3 두브로브니크 게이블카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왕좌의 게임〉 기념품점



시즌7을 기다리며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는 〈왕좌의 게임〉을 보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많아 관련 기념품점은 물론이고 촬영지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왕좌의 게임〉은 최근 시즌6가 종영하면서 다음 시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긴 기다림을 참아야 하는 지금, 크로아티아에 있는 촬영지를 찾아 거닐면서 아쉬움을 달래 보는 건 어떨까.

Nikola Tesla

니콜라 테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

니콜라 테슬라 메모리얼 센터 Nikola Tesla Memorial Center

📍 Smiljan 87/1, 53 211 Smiljan

🌐 www.monikolatesla.hr/en

👤 성인 기준 50KN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테슬라Tesla'가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의 이름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테슬라가 사람의 이름이었다니, 그것도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위인이었다니, 놀라웠다. 크로아티아 태생의 세르비아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 버금갈 정도로 놀라운 전기 발명 업적을 세운 그는 왜 에디슨만큼 유명해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찾으러 스미리안Smiljan이란 이름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니콜라 테슬라 메모리얼 센터 Nikola Tesla Memorial Center를 찾았다. 니콜라 테슬라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6년, 니콜라 테슬라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 터에 문을 열었다. 생가 옆에는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기도를 올리던 작은 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어릴 때부터 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고, 집 앞에 흐르는 작은 냇가에서 놀면서도 수력발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정도로 타고난 천재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에너지'와 '전파' 발명에 천착했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류 모터가 최선의 전기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던 에디슨에 맞서, 교류 모터를 최초로 개발하고 그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에디슨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결국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테슬라가 자신의 몸에 교류 방식으로 전기를 통과시켜 이상이 없음을 보여 주고 나서야 승패가 결정됐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병렬 전기 시스템과 많은 가전제품 그리고 인터넷까지, 테슬라의 발명에 빚지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런 수많은 업적에 비해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식 학위가 없다는 점, 발명에 바빠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괴짜'라고 비춰졌던 그의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일종의 강박증 환자였던 그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도 만나지 않았고, 음식도 새 모이처럼 아주 조금만 먹었으며, 3으로 나뉘지는 모든 숫자에 집착했고, 항상 테이블 위에 18장의 냅킨을 올려두어야 할 정도로 박테리아를 두려워했으며, 복숭아와 진주목걸이를 이유로 없이 싫어했다. 7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천재였지만, 누구 한 명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채 평생 연구에만 몰두하다 세상을 떠난 그의 생애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나마 그의 이름만큼은 찬란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까? 자기장에 대한 유도 단위 T의 명칭인 테슬라는 물론이고, 그의 고국인 세르비아는 그의 이름을 따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로 공항 이름을 붙였다. 하다못해 자그레브의 커피숍에서도 그의 이름을 딴 '테슬라 블렌드Tesla Blend'를 만날 수 있다. 당신이 어느날 크로아티아를 여행한다면 꼭 한 번쯤 이곳에 들러 보길 권한다. 테슬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직원의 자세하고도 열정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크로아티아의 전원 풍경은 덤이다.

“미래가 진실을 말하도록 두라. 내 업적과 성과는 하나하나 미래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현재는 그들의 것일지 모른다. 허나, 미래는, 내가 진정으로
일함으로써 얻은 미래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 니콜라 테슬라

1 니콜라 테슬라는 '먹는 시간도 아깝다'면서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먹었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모습이었는지도
2 테슬라의 생가가 있는 마을, 스미리안의 평화로운 풍경
3 생가 내부를 개조해 박물관으로 꾸몄다



TESLINI LABORATORIJI
TESLA'S LABORATORIES

- 1885-1887 Rahway, New Jersey
- 1887-1889 Liberty Street 89, New York City
- 1889-1890 Grand Street 175, New York City
- 1890-1895 South Fifth Avenue 33-35, New York City
- 1895-1899 East Houston Street 46-48, New York City
- 1899-1900 Colorado Springs
- 1901-1912 Wardenclyffe, Long Island
- 1905-1914 Broadway 165, New York City
- 1914 Woolworth Building, Broadway 233, New York City
- 1914 Madison Avenue 1, New York City
- 1915-1924 West 40th Street 8, New York City
- 1925 i kasnije (and later) Madison Avenue 350, New York City

Delicious Croatia

크로아티아의 식탁

크로아티아의 소울 푸드

빵Bread

나라마다 소울 푸드가 있다. 크로아티아의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한 바구니 수북이 담긴 빵이었다. 그 빵에 질 좋은 올리브 오일과 식초, 또는 크림치즈를 듬뿍 발라 먹다 보면 금세 동이 났는데, 그때마다 다시 수북하게 빵을 담은 새 바구니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테이블 위에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음식 문화라고 그래서 어느 레스토랑에서나 맛있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크로아티아 전통 가정식

페카Peka

오래됐거나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친다는 레스토랑에 가면 어김없이 자랑스럽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페카Peka'라고 불리는 화덕이었다.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우리로 치면 가마솥 같은 존재다. 쇠로 만들어진 커다란 원형 통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담은 다음, 주변에 숯을 쌓아 올려 오랜 시간 익히는 방식이다.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을 감자, 버섯, 당근, 호박 등 채소와 함께 넣고 기름이 쪽 빠질 때까지 익힌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촉촉한 육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특징. 크로아티아를 간다면 꼭 맛보아야 할 음식이다.



레드와인과 환상궁합

쿨렌Kulen

크로아티아의 명물 중의 하나가 바로 '쿨렌Kulen'이다. 하몽과 비슷한 크로아티아 스타일 소시지로 비싼 가격만큼 고급스런 맛이 일품이다. 북부와 남부에서 먹는 쿨렌의 모양이 서로 다른데, 얇고 길쭉한 모양으로 말린 것은 북부, 넓은 넓적다리를 통째로 말린 것은 남부 달마치아 지방의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식이나 생일,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을 정도로 귀했다고. 그 전통을 따라 지금도 중요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다고 한다. 치즈, 올리브와 함께 레드와인에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다.



크로아티아의 통영 굴이탈까

스톤 굴Ston Oyster

두브로브니크 인근 도시인 스톤Ston은 연간 200만톤의 굴과 2,000톤의 홍합을 생산하는 산지다. 크로아티아 굴 생산량의 60%를 책임진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영 같은 곳인 셈. 두브로브니크의 유명 레스토랑 메뉴판에도 '스톤 산 굴Oysters from Ston'이라고 표기해 놓을 정도다. 스톤의 로컬 속소인 빌라코루나Vila Koruna의 1층에는 80년 전통의 굴 전문 레스토랑이 있다. 이곳에선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인 굴에 레몬과 스톤의 천연 소금을 곁들여 먹는다. 다만 초창기에 굴을 찍어 먹는 맛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조금 비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3대 맥주

오쭈스코 · 카를로바츠코 · 벨레비츠코

크로아티아의 3대 맥주 브랜드는 오쭈스코Ožujsko · 카를로바츠코Karlovačko · 벨레비츠코Velebitsko다. 어딜 가나 이들 맥주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부자 카페Cafe Buza에 가면 "코리안? 레몬버어?"라고 말을 걸어 올 정도로 한국인들이 그렇게 오쭈스코 레몬맛만 찾는다. 이번 여행에서 원정대원들이 가장 맛있게 마신 맥주는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레스토랑 '리츠카 쿠차Lička Kuča'의 벨레비츠코 드래프트 비어였다. 문자 그대로 '꿀맛'이 느껴졌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맛보길.



리츠카 쿠차 | Ulaz 1, Plitvice National Park | www.np-plitvicka-jezera.hr | 벨레비츠코 드래프트 비어 20KN, 홈에이드 소시지 70KN, 송어 구이 95KN

인생 아이스크림을 만나다

루카 아이스크림LUKA Ice Cream

크로아티아 남부 도시들의 거리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흔하다. 우리는 현지인 가이드와 동행한 덕에 가는 도시마다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에 대한 정보를 얻곤 했는데, 그중 최고는 스플리트의 '루카 아이스크림'이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난 줄이 그 인기를 증명하는 듯했다. 직원은 가장 인기 있는 맛으로 '페레로로쉐맛'을 추천했지만, 우리가 베스트로 꼽은 맛은 '피스타치오'. 많이 달지 않으면서 먹을수록 고소한 감칠맛이 맴도는 그 맛. 한화 1,8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인생 아이스크림을 만난 기분이었다.



루카 아이스크림 | Svadiceva 2, Split | 싱글콘 9KN

Restaurants

숨어 있는 맛집 발견

스플리트 아페티트Apetit

원정대원 모두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맛있었던 레스토랑으로 꼽은 곳. 스플리트 구시가의 평범한 건물 2층에 자리해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음식 맛은 그 어떤 유명 레스토랑보다 좋았다. 어머머만한 앙을 자랑하는 미트 플레터는 꼭 맛보아야 하는 메뉴.

스플리트 아페티트 | Pava Šubića 5, Split | www.apetit-split.hr | 미트 플레터(2인분) 220KN, 해산물 파스타 80KN, 오징어 먹물 리조토 75KN



맛도 분위기도 서비스도 만점

자그레브 포드 그리츠킴 탑Pod Gričkim Topom

1877년 새해 첫날부터 매일 정오에 대포를 발포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로트르슈차크 타워Lotrščak Tower 인근에 자리한 레스토랑. 나무를 많이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청박으로 펼쳐지는 자그레브 시내 뷰, 훈훈한 웨이터의 서비스와 맛 좋은 음식까지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곳이다.

자그레브 포드 그리츠킴 탑 | Zakmardijeve stube 5, 10000 Zagreb | www.restoran-pod-grickim-topom.hr | 이스트리안 파스타 85KN, 오징어 구이 122KN, 돼지고기 요리 92KN



고품질 해산물 요리

자다르 ZIBARA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달마치아 지역, 자다르에서 실패하지 않는 식사를 하려면 이곳을 찾아가 보길 비리네가 하나도 나지 않는 깔끔하고 수준 높은 해산물 요리를 3코스로 맛볼 수 있다. 프로페셔널한 웨이터에게 와인을 추천받아 곁들이면 더 좋다.

자다르 ZIBARA | Blaža Jurjeva 1, HR-23000, Zadar | www.restorani-zadar.hr | 해산물 3코스 75K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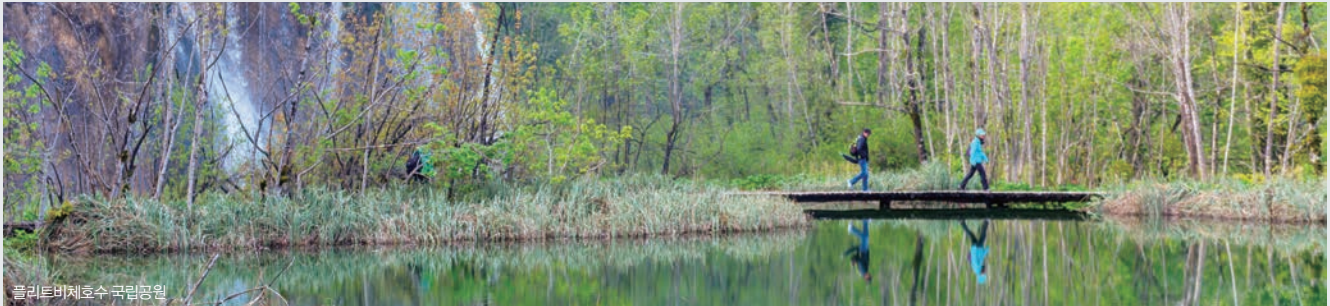
관광청이 인증한 레스토랑

두브로브니크 프로토Proto

두브로브니크 성벽 안에 있는 레스토랑만 200~300곳. 그 수 많은 레스토랑 중에서 관광청이 꼭 집어 추천한 맛집이다. 테라스에 앉아 두브로브니크의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다. 신선한 달마치아식 문어 샐러드, 트러플 오일의 향이 흠뻑 밴 파스타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유명한 '플라바츠 말리Plavac Mali' 레드와인을 곁들이길 추천. 플라바츠 말리는 세계적인 와인 품종인 진판델Zinfandel의 조상이다.

두브로브니크 프로토 | Široka 1, Dubrovnik | www.esculap-teo.hr | 문어 샐러드 146KN, 플라바츠 말리 와인 1잔 27~48K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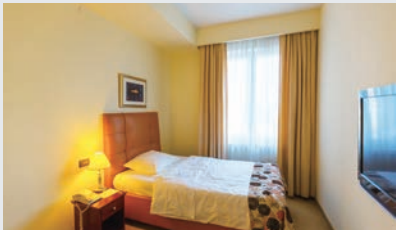
플리트비체호수 국립공원

HOTEL

자그레브 | 호텔 두브로브니크 Hotel Dubrovnik

자그레브를 짧고 굵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4성급 호텔. 옐라치치 광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돌라체 광장과도 도보 3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나 숙박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방에서 광장을 오가는 트램과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 Gajeva ul. 1, 10000, Zagreb 📞 hotel-dubrovnik.hr



자다르 | 클럽 퍼니메이션 Club Funimation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딱인 4성급 호텔. 코펄을 살랑 거리는 바람을 느끼며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쾌적한 수영장과 놀이시설, 당장 나가서 걷고 싶어지는 풍경의 해변,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발코니도 훌륭하다. 게스트 침대에 소파까지 갖춰진 넉넉한 룸 사이즈와 휴양지에 온 느낌을 주는 폭신한 침대로 매력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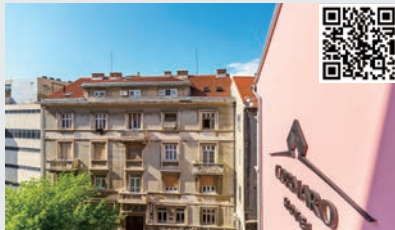
📍 Majstora Radovana 7, 23000, Zadar
📞 www.falkensteiner.com/en/hotel/borik



스플리트 | 코르나로 호텔 Comaro HOTEL

광장과 해변까지 5분도 걸리지 않는 중심가에 위치한 깔끔하고 모던한 호텔. 방마다 걸려 있는 패셔너블한 그림은 물론 모노톤으로 꾸며진 객실이 편안하다. 디오클레티안 궁전, 닌스키 주교상, 대성당 등 주요 관광 포인트로의 이동이 편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기 그지 없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광도 놓치지 말 것.

📍 Sinjska ul. 6, 21000, Split 📞 www.comarohot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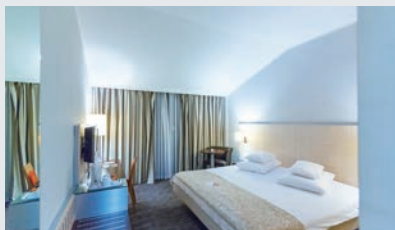


두브로브니크 | 발라마르 라트로마 두브로브니크

Valamar Lacroma Dubrovnik

구시가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쾌적한 4성급 호텔. 소나무 숲과 하얀 자갈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2013년과 2015년 크로아티아의 리딩 호텔로 선정되는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뷔페와 로비의 바에서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은 덤.

📍 Ul. Iva Dulčića 34, 20000, Dubrovnik
📞 www.valamar.com/en/hotels-dubrovnik/valamar-lacroma-dubrovnik-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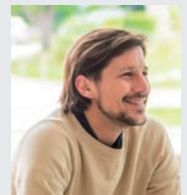


TOUR GUIDE

믿고 맡기는 여행 가이드
쿠퍼트래블

이번 크로아티아 원정대의 여행을 함께한 다미안 Damijan Bausan은 최고의 가이드였다. 프랑스 미술생 가이드 취재진이나 미국 여행업협회 대표단 등 중요한 손님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할 때마다 관광객이 가이드를 맡길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가 직접 운영하는 여행사 '쿠퍼트래블 Kufer Travel'은 '헬로 자그레브 Hello Zagreb'라는 이름의 자그레브 데이 투어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를 여행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와 함께 여행해 보길 추천한다.

📞 kufer-travel.com/hellozagreb.com



SHOP

스플리트 유일의 한국인 부부가 있는 곳
기념품샵 '더 허브 The Herb'

이른 아침, 텅 빈 거리를 걷다가 한글 간판을 발견했다. 어? 놀라움에 다시 한 번 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게 앞에 나와 있다. 스플리트에 단 3명밖에 없다는 한국인 중 2명이 바로 이 가게의 주인 부부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낯익은 한글 설명이 가득하다. 천연 허브로만 만든 화장품부터, 트러플 올리브 오일, 아로니아 파우더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 Bosanska 11, 21000 Split ☎ +385 21 228 353

